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광주 2/14℃ 목포 3/12℃ 여수 5/12℃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1월 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05호 1판 2010년 2월 22일 월요일

광주 서창동에 관광레저타운

330만㎡ 규모 민자 등 2조 유치…대기업 3곳 참여 타진

광주시가 서구 서창동 절골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 330만㎡(100만평)에 2조 원대의 민간자본을 유치, 관광·레저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돔 야구장 민자유치가 일단 무산되긴 했으나, 이번 사업에는 대기업 3곳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21일 "서구 서창동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관광·레저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된 '관광산업육성추진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구상과 사업절차 방식을 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레저복합타운 위치도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관광산업육성추진위가 마련한 기본구상에 따르면, 관광·레저복합타운은 ▲국제민속·음식촌(66만1천㎡, 4천500억 원) ▲공예산업클러스터(33만㎡, 2천억 원) ▲스포츠타운(33만㎡, 2천억 원) ▲관광레저타운(66만1천㎡, 4천억 원) ▲문화상품복합단지(16만5천㎡, 1천8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스포츠타운에는 축구장·유스호스텔·실내종합훈련장, 관광레저타운에는 호텔·워터파크·월드테라피·테마파크 등이 계획돼 있다. 문화복합시설단지 내에는 엔터프라이즈센터·문화상품기술디자인센터·창작공방 등이 설치된다. 이 밖에 높이 300m의 광주타워(6만6천㎡, 700억 원), 1천5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9만9천㎡, 1천억 원), 교육·의료·서비스시설(16만5천㎡, 1천800억 원), 공원 및 녹지(82만6천㎡, 2천억 원) 등도 구상돼 있다.

광주시와 관광산업육성추진위는 이 같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주 관광·레저복합타운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민간투자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22일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법인 및 2개 법인 이상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사업제안', 전문가 및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유제안' 등 2가지로 이뤄진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 정식 제안자격을 부여하거나 사전양해각서를 체결해 사업추진을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사업자 모집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사업 아이디어 모집을 통해 민간 참여를 구체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업계는 현재 L, D, H 등 대기업 3곳이 이번 민자타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사업자 모집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변호사 구 길 선 올림

업무개시 : 2010. 2. 12
대표전화 : (062) 222 - 5205
개업소연 : 2010. 3. 17(수) 17시-20시

나란히 금·은 이정수(왼쪽)가 21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콜리세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천m 결승에서 우승한 후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며 기뻐하고 있다. 간발의 차로 은메달에 그친 이호석은 허공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최인기 의원 소환 조사

'불법 공천헌금' 연루 의혹…한화갑 前 의원도 수사

'2006년 지방선거 전남도의원 공천헌금 불법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을 당시 민주당 고위층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공천헌금 불법 수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게 되면, 옛 민주당의 비리이긴 하나 이번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전남도의원인 양모씨와 박모씨를 구속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인기 국회의원을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공천헌금 수수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남도당 당직자 손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된) 박씨가 3억원 정도 특별당비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고, 손씨에게서 이를 전달받은 박씨는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인 김모씨 명의의 계좌에 3억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박씨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중앙당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다른 당직자를 통해 당비납부를 권유하기는 했으나, 당시 도의원 비례대표 추천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권을 행사해 최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또 "박씨와 전혀 친분이 없고, 공식 절차를 거쳐 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식계좌에 당비를 낸 만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당 대표였던 한화갑 전 의원이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된 양모 씨에게 특별당비 3억원을 내도록 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두 도의원이 건넨 돈의 최종 행방을 찾을 때까지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전남도당 및 중앙당의 최고위 당직자 등 이번 사건과 연루된 공천관련 핵심 인사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민주 정세균 대표 "잘못됐다"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 사실상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을 어렵게 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가 일부 선거구에 대한 공천 포기 등을 통해 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나타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이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초의원 소선구제 도입을 막고 6월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연대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애초에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 소수정당의 진출을 가로막는 조례를 통과시킨 데 대해 "한나라당이 그렇게 한다고 민주당도 똑같이 해서야 되겠느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시정에 나설 의사를 표명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와 관련 "두 명을 뽑는 선거구가 두개가 있다면 한 곳은 두 명을 공천하되 다른 한 곳은 한 명만 공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기초의원 공천권은 시도당에 있는 만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정수 쇼트트랙 2관왕

한국 금1·은2·동1 추가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빛소식을 날렸던 이정수(단국대)가 두번째 금메달 낭보를 전해왔다. 이정수는 21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콜리세움에서 벌어진 쇼트트랙 남자 1천m 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인 1분23초747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18면〉

이로써 이정수는 남자 1천500m 우승에 이어 1천m까지 정상에 오르면서 2관왕의 기쁨을 만끽했을 뿐 아니라 남자 500m와 5천m 계주에도 출전이 예상돼 전관왕도 노려보게 됐다.

남자 1천500m에서 충돌사고가 났던 이호석(고양시청)은 1분23초801로 이정수에 간발의 차로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동메달은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에게 돌아갔다.

앞서 열린 여자 1천500m 결승에서는 이은별(연수여고)이 은메달, 박승희(광문고)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신세대 스프린터' 모태범(21·한국체대)은 남자 1천500m 결승에서 1분46초4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5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당초 '골든데이'를 기대했던 한국은 이날 금 1·은 2·동 1개를 추가하는데 그쳤지만 중간 메달집계 금 4·은 4·동 1개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